



## 예비군 창설 제56주년 기념 장관 격려메시지

자랑스러운 250만 예비군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방부 장관입니다.

제 56주년 예비군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대한민국 예비군은 1968년 창설 이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항상 앞장서 왔습니다.

언제나 국가안보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예비군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북한은 지난 70여 년간 3천여 회 이상의  
계획적인 도발을 자행해왔습니다.

현재는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며 대한민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압도적인 국방태세를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을 지키는 또 하나의 힘’인 예비전력을  
정예화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원부대의 장비, 물자, 훈련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비상근예비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훈련 보상비 인상, 예비군 권익보장, 복무여건 개선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예비군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예비군 제도와 정책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기념식을 주관해 주시는 모든 광역 자치단체장님과,  
민·관·군·경·소방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애쓰시는  
업무담당자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비군 창설 제5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5일

국 방 부 장 관

신 원 식